



스틸하우스 및 단열재, 구조재 등 건축자재 전문 기업인 아이케이주식회사(www.iksteel.com, 이하 아이케이) 윤석규 대표는 남다른 직원 행기기로 정평이 나 있다. 경기도 양주와 충북 오창 공장과 경기도 일산에 본사를 둔 아이케이는 2003년 3명의 직원으로 출발, 현재 100여명이 넘는 직원과 매출 1,000억 원을 바라보는 회사로 성장했다. 창업에서 지금까지 퇴사자가 없다는 흔치않은 기록을 보유한 아이케이를 찾아갔다.

장마가 시작했다. 곧 비가 쏟아질 듯 하늘은 회색도시 같은 색을 입고 잿빛 아스팔트를 굽어본다. 경기도 일산에 소재한 아이케이 본사는 잘 가꿔진 주택가와 큰 길 사이에 있다. 사무실을 나서면 금방이라도 고객의 요청에 맞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외부와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연못과 카페가 있는 회사 내부를 다니다보면 “고객과 직원의 만족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이 좋은 회사”라는 윤 대표의 경영철학을 만날 수 있다.

직원과 회사가 함께 행복한 아이케이주식회사



실전을 통해 얻은 확신

“창업 전 해외수출 업무를 맡던 10년의 기간은 체계 있어 지금까지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고, IK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던 견문확장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성형기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일광메탈포팅에서 10년 동안 재직했던 윤 대표는 해외 건축자재 시장의 흐름을 읽음과 동시에, 80여 개국의 바이어와 만나며 사업에 있어 무엇보다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지금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면 결국 좋은 결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 당시 관계를 맺었던 바이어들이 저를 믿고 거래를 시작했지요.” 라는 윤 석규 대표. 그는 “나이지리아는 제가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예전에 거래했던 바이어가 그곳에 소문을 내 줘서 현재 저희 제품이 팔리고 있다”며 신뢰만큼 좋은 사업 자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환경’ 화두로 이동하는 건축자재 시장의 변화를 주목한 윤 대표는 창업 후 친환경적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새로운 개념의 건설자재 개발을 위해 매진한다. 지속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건설자재 유통을 하며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IK는 3년간 100억 원을 R&D에 투자, 결국 화재에 강하고 친환경적인 신개념 단열재 프리보드를 개발에 성공하였다. 프리보드는, 아이케이만의 특허인 무기질 난연액을 스티로폼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난연 성능이 뛰어나고 타제품에 비해 불에 잘 타지 않는다. 또 연소 시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적어 보다 안전하며 비슷한 등급의 난연자재들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한편 올해 프리보드 개발과 함께 현재 과포화

상태인 국내 제철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동부제철과 발전적 상생관계를 이뤄내기도 했다. 프리보드 전면과 후면에 쓰이는 철판을 전량 동부제철에서 공급받기로 하고 아이케이는 동부제철로부터 프리보드 생산라인을 증설할 수 있는 시설비 100억을 투자받은 것.

건설자재 유통으로 시작한 아이케이는 현재 프리보드를 비롯한 단열재, 지붕재, 외장재 및 스틸구조물인 프라이 등 건축자재 전반을 취급한다. 3년여의 시간을 들여 이뤄낸 상생으로 아이케이는 1조원 규모인 단열재 시장을 내년이면 30%정도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

“배려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라, 최선을 다해라, 매사에 항상 학습하고 일과 인생을 즐겨라.” 아이케이에 있는 다섯 개 수신덕목이다. 일주일에 두 번 있는 회의 때마다 직원들은 한 사람씩 다섯 개 수신덕목 중 일 상에서 느낀 경험을 이야기한다.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직원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자신도 생활 속에서 다섯 개 덕목을 늘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아이케이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는 바로 독서경영. 윤 대표가 직원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나 뜻이 담긴 책을 선정하여 나눠주면 직원들은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한다. 처음엔 다양한 독서가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방법은 윤 대표에게 뜻밖의 수확을 안겨줬다. 독후감을 읽으며 여지껏 알지 못했던 직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 이를 통해 “직원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이런 독서경영과 다섯 개 수신덕목은 모두 대표와 직원

간 ‘가치 공유’를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다. 이 밖에도 아이케이는 중소·벤처기업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복지제도에도 유명하다. 유아수당, 육아수당, 초·중·고·대학교 학비 지원은 물론이고 얼마 전에는 남자 직원들에게도 유아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직원이 성장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이며 ‘그것이 곧 사회공헌’이라는 윤 대표.

이와 함께 아이케이는 가족이 같이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거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매월 문화생활비를 지급한다. “직원의 입장에서 회사의 지원으로 아이의 책을 사줄 수 있을 때 참 행복할 것 같아서” 시작한 이 제도가 직원들의 호응이 가장 크다고 귀띔한다. “사람은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애사심이 생깁니다” 윤 대표의 말이다.

사업을 하며 가장 기쁠 때를 묻자 그는 “신제품 출시” 혹은 “성공적인 개발”등의 답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직원들이 회사를 사랑하는 걸 느낄 때”라고 말한다. 또 그가 전달한 것의 의미와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 가장 힘들다는 그의 대답에서, 성과보다 ‘관계’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경영관을 발견할 수 있다.

창업 초기 철강제품과 폴리우레탄용 접착제를 유럽, 동남아 국가에 수출했고 2004년 수출 1,700만 달러를 기록한 아이케이의 성공은 고객과 직원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은 윤 대표의 사람경영과 기술력으로 가능했다. 건축내·외장재 관련 100여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케이는 이제까지 개발한 기술이 성장엔진을 달았다고 판단한다. 또 요즘 새롭게 개발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크다. “2012년엔 1조 매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윤 대표의 힘 있는 각오를 새기며 회사를 나선다. 장마가 계속돼도 어느새 맑아진 하늘아래 햇살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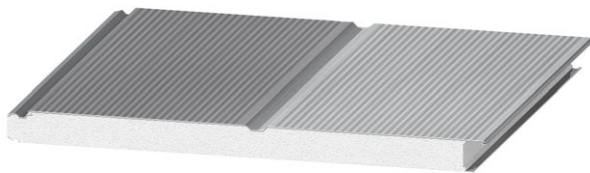
Products

1) 프리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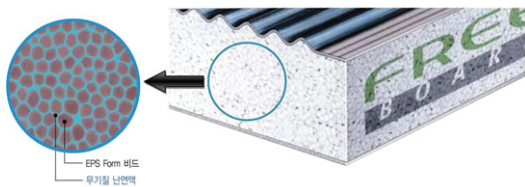
화재에 강한 준불연성 단열재 및 패널용 심재로서, 시공성이 뛰어나고 경제적인 건축단열재

- 특징 및 장점 -

- I. 난연 2급, 3급 획득한 준불연성 스티로폼 패널
- II. 유해물질 저감으로 유독가스 배출 적음
- III. 저렴한 제품가격과 시공비 절약
- IV. 외장의 아름다움까지 고려한 다양한 컬러 및 포밍기술



- 프리보드 패널 -



프리보드는 아이케이만의 특허 무기질 난연액을 유기질인 스티로폼에 주입하여 난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난연액 성분이 구조체내에서 바인더 역할을 수행하여 촘촘한 벌집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난연성능이 뛰어나 타제품에 비해 불에 잘 타지 않는다. 아이케이가 자체 개발한 이 난연액은 그을음 등의 유해 물질을 스스로 흡착해 연소시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적어 보다 안전하다. 이러한 안전함뿐 아니라 비슷한 등급의 난연자재인 우레탄, 글라스울 등에 비하여 제품 가격이 저렴해 경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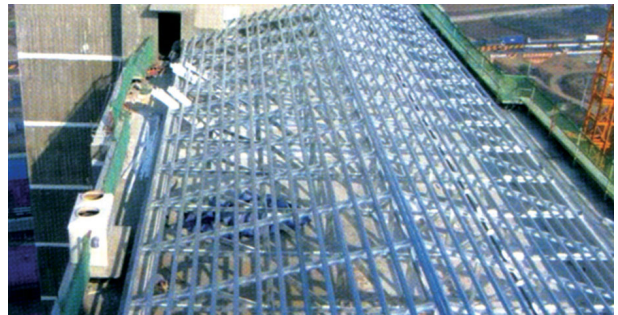
2) PRY 트러스

아이케이와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고강도 아연도금강재를 소재로 한 초경량 구조재

- 특징 및 장점 -

- I. 고강도를 이용해 구조적 안전성이 우수함
- II. 아연도금의 특성상 녹이 슬지 않고, 부식이 진행되지 않아 반영구적
- III. 초경량이라 시공이 간편함
- IV.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에 맞춰 개발

PRY 트러스는 주로 지붕 구조재로 쓰이지만, 지붕뿐 아니라 스틸하우스 (3층 기준) 구조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아연도금의 특성상 녹이 슬지 않고, 절단부위의 부식이 진행되지 않아 반영구적이며, 목조건축물에서 나타나는 흰개미 피해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 아파트 지붕에 쓰인 PRY 트러스 -



- PRY 트러스로 시공한 스틸하우스 -

3) 아이루프, 아이패널

다양한 컬러로 보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건축 외장재

- 특징 및 장점 -

- I. 다양한 컬러로 고급스러운 디자인 연출 가능
- II. 홑판 설치가 가능해 리모델링에 용이
- III. 독창적 연결방식으로 부식 및 누수 우려 없음

아이루프는 지붕 길이에 맞게 제품이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에 공급되므로 시공이 매우 간편하다. 또 나사못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아이루프 끼리 연결하므로 부식 또는 누수의 우려가 없다. 아이패널 역시 가볍고 외벽 길이에 맞게 제품이 생산되어 현장에 공급되므로 시공이 매우 간편해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또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완벽한 방수성능을 갖는 제품이다.



- 아이 루프와 아이 패널을 적용한 건축물 -



mini _ 산업돋보기

스틸하우스



아이케이 모델하우스



아이케이 이천씨알축산

스틸하우스란 “steel framed house”의 약자로 기존의 벽돌, 목조를 대신하여 골조를 경량철강재로 대체하는 새로운 구조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스틸하우스는 두께 1㎜ 외의 아연도금강판을 B나 C형태로 가공하여 강도를 높인 트러스를 골조로 사용해 공사기간이 짧으며, 내구성이 탁월하다. 아연도금의 특성상 녹이 슬지 않고, 절단부위의 부식이 진행되지 않아 반영구적이며, 목조건축물에서 나타나는 흰곰팡이 피해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보온 및 단열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내외장재로 마감 가능하므로 외관이 매우 아름답다.

100년 뒤에도 99% 재활용이 가능한 스틸하우스는 21세기형 환경주택이라 불리며 최근 자연보호, 자원재활용 등 환경친화적 요구에 대한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으며, 미국은 2010년까지 신설주택(연간 약140만호)의 75%, 일본(연간 약140만호)은 20%를 스틸하우스로 보급할 계획에 있다. 국내는 습식건축 방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스틸하우스는 세계적인 추세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급 타운하우스나 펜션 시공 등에 스틸하우스를 채택하는 단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샌드위치 패널



아이케이 오창공장



아이케이 일본 본사사옥

샌드위치 패널은 공장, 상가, 창고 등의 건축물에 흔히 사용되는 건축용 벽판/지붕판으로 철강재 표면 사이에 들어가는 단열 심재에 따라 스티로폼(EPS), 폴리우레탄, 그라스울로 나뉜다. 전체 단열재 시장은 약 1조 원이며 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EPS 샌드위치 패널은 그라스울이나 폴리우레탄에 비해 취급이 용이하고 재활용 가능, 저렴한 가격 등의 장점으로 그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 EPS 샌드위치 패널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화재에 약하다는 것. 이에 일부 업체들이 일반 EPS 샌드위치 패널을 난연 등급을 받은 패널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켜왔다. 실제로 작년 9월 경찰청 특수수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난연 EPS 샌드위치 패널 중 약 80%가 난연 효과가 없는 가짜인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지난 6월 가짜 난연자재 제조자 및 사용자까지 모두 처벌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가짜 난연 EPS 샌드위치 패널의 유통 근절과 함께 난연 EPS 샌드위치 패널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